



물은 어떠한 게 닥치든지 유유히 흐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또 내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했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하하... 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여기 청주에서 아주 요긴할 거, 우리가 생활에서 요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시급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갖다가 쌓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고정된 게 없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을 줄 알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느 거 하나 고정된 게 없이 용도에 따라서 지꾸지꾸 닥치는데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야 할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 이런 것이 모두 첩보돼야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자기 주인공 뿌리를 진짜로 믿고 너만이나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너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애고를 없앨 수 있다. 너만이 병고를 낮게 해서 튼튼하게 심부름을 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몸종이와 자기 몸종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자기 스스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세워서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겠군요. 예전부터 천주교에서나 불교의 스님들이 묵언을 많이 하고 갑니다. 3년을 하기도 하고 1년을 하기도 하고 한 철을 하기도 하고 몇 달을 묵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위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묵언이라는 게 있으면 묵언 아닌 게 붙습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우리가 발을 떼고 올 때에 짙어지지도 않고 또는 거기에 애착도 없이 그냥 그대로 걸어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했어도 함이 없고 아니 했어도 아니 한 게 없고 해도 한 게 없는데, 묵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거기에 걸리는 거죠. 모두가 묵언을 한다는 데서 걸리고 안 한다는 데서 걸리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고정되지 않고 찰나찰나에 그 모두가 나뉘면서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한 것이 없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혼자 한 게 없고 내가 한 게 없죠. 하하하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언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그러니 모두가 그 도리를 알려면 그저 딱따구리가 나무통 뚫듯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있느냐 없느냐, 아리송하다, 못 믿는다, 이걸 더 캐야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어린애가 아무 걱정도 없이 걸음마 배우듯 말입니다. 어린애가 넘어질까 봐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발을 못 땡니까? 걸음마 배우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을 떼어 놓지만 한단 말입니다. 애들이나 뒤에 보호자가 있거든요. 보호자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자기는 어린애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떼어 놓듯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공부할 당시에, 사실 공부라고 할 것은 없죠, 생활이 공부니까. 6·25때 강을 끼고 싸우는 걸 봐서 그러니 그걸로다가 비유해서 스크린처럼 나오는데 말입니다. 어느 때인

지 강을 사이에다 두고선 이쪽 군인하고 저쪽 군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 저쪽이 싸우면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어휴! 부처님 한마음인데 어떻게 싸우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그냥 그것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그머니 하나만 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조그맣던지, 요만한 게 그래도 행전은 치고, 하하하... 키 긴 거 하나를 질질질 끌고서 그냥 혼자 거길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바로 싸우나, 싸우지 않는다 하는 양면이 없는 자리구나.' 이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양면이 없는 자리, 즉 양면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소켓에 끼우기만 하면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공부하는 작업이 그 소켓에 끼우는 작업이에요. 돌이 아니게 그 소켓에 맞게

끔 그냥 무조건 믿고 끼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문 제거든요. 그러면 불은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 한마음 뿌리,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냥 타 버리는 거와 같아요. 타 버리는 거와 같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아 버리는 거와 같고, 모두가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있네, 무슨 번뇌 망상이 일어나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번뇌 망상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요. 애고 공부할 크게 할 수 있는 재료니까요. 우리 모두가 '어휴! 내가 죄를 얼마나 짓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가 닥치는 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실 거 없어요?

질문자(남): 저는 현재 범행제회에서 공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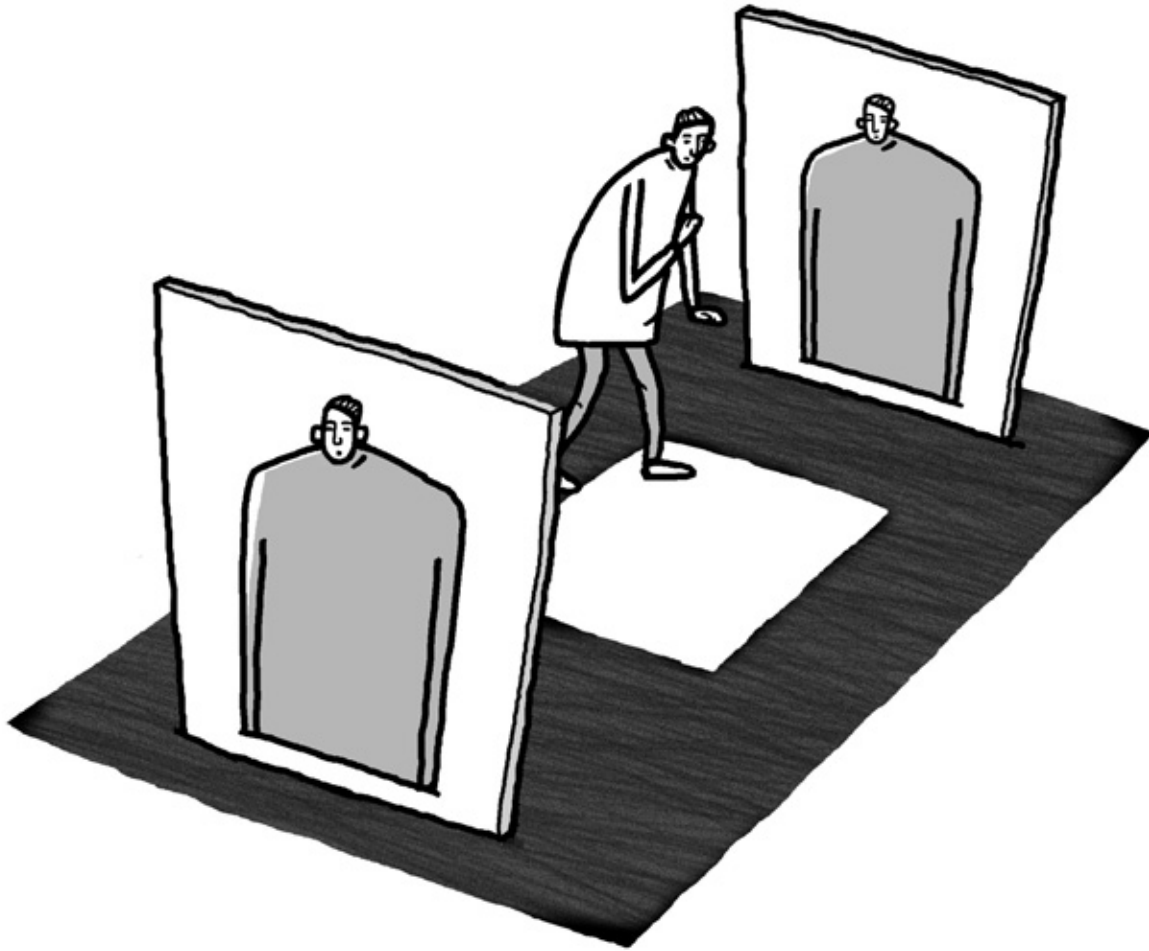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직지심경 금속 활자본을 만든 청주 고장에서 큰 스님을 모시고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개원법회를 봉행하게 된 저희 불자들은 큰 영광이고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지원 불자들이 한마음 법을 공부하는 데에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수행 과정에서 방하작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생활해야 큰 참선이요,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방하작을 방하작이다 하면 방하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까 그대로 거기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란 말 안 해도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모두들 놓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당겨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지꾸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으니깐 '그것 좀 내려, 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차적으로 '야! 네 뿌리에다 내려. 네 뿌리만이 너를, 네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뿌리에 믿고 내려, 내려.' 영 안 놓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 내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뿌리만이 나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 믿고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방편 중에 제일 첫 번 관문입니다.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그겁니다.

질문자(남): 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반아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오는데 81년도 퇴옹 성철 큰스님께서 종장으로 추대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뜻이 같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나라.' 이랬기 때문에 '공도 색도 돌이 아닌 깨달음 공은 공대로 있고 색은 색대로 있느니라.' 하는 걸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른 쉽게 말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다면 이치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돌이 아닌 깨달음 너는 너고 나는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찰나찰나 놓고 가세요

29면에서 계속

나다.' 해야 되겠지요? 모습은 다 다들지언정 뿌리는 한 뿌리이다. 뿌리는 한 뿌리고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모습은 다 다르다. 각계각층이 말이다. 먹는 것도 각계각층이 천차만별로 다 자기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끈초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짐승이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모두가 천차만별로 먹고 사는 그 도리를 전체 바다로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를 삼키고 토해서 만 중생들한테 각계각층에 먹을 거를 알맞도록 이렇게 내려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를 아주 작게 정맥 동맥으로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한데 합쳐서 정맥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없어서 안 되고 동맥이 없어서 안 되고 정맥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정맥은 정맥대로 있고 동맥은 동맥대로 있다 이런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전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정맥 동맥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번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정맥 동맥 양면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로부터 정맥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맥이라는 이름이 있는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용하고 살아가 이거지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것 따지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르면 그냥 먹고 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가지고 꽃이 필요하면 꽃을 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지, 산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체가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이니까요.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큰스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그 한마음 자리에 같이 우리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자유인이 되도록 청주 불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청주에서도 일컬어지는 분들이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앞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과 통찰력을 아주 영민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만한 어린애들한테도 관점을 집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녀는 재산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보배입니다. 어느 신도 집 아이인데 아버지는 이 공부부를 하러 잘 안 오지만 그 학생

은 정신이 아주 지극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활맥이 통하질 못해서 여기가 그냥 수북하게 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었죠. "너는 네 뿌리를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지, 저 나무를 보라." 그래 일러 줬어요. "나무의 뿌리처럼 네 뿌리가 바로 과거에 살던 영원한 너의 친구니까 그것을 믿어라. 바로 과거의 네가 현실의 네 몸뚱이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가는 거니까 진짜로 믿어 봐! 과거의 너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주 잘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네 주인공만, 네 뿌리만 너를 이끌어주어야 병도 낫게 하고 피도 잘 돌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한마디 딱!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얘가 필필 뛰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라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

것인지요, 아니면 한마음 바다에 그냥 있는 것이지요?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그러듯이, 연어가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가 자기 겹테끼 한 옷을 벗으면 새 옷을 다시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래서 차원이 높으면 높은 대로 기리기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기리기리 모입니다. 그래서 소천 세계 중천 세계 대천 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찰에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났다면 세세생생에 꼬달리지 않을 겁니다.

더니 스님께서 피부하셨던 화가 제게 와서는 오히려 축복이 되어 쏟아지는 법열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큰스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하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시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스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을 깨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스님 대하듯 믿고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실제 저의 생활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본래 화낼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덩달아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흥을 보기도 하고, 또한 한 관히 마음을 비비꼬아 혼자 신경질을 내는 때도 있어 마음의 작용이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일체 만법이 주인공 자리에서 들고 나는 것을 믿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참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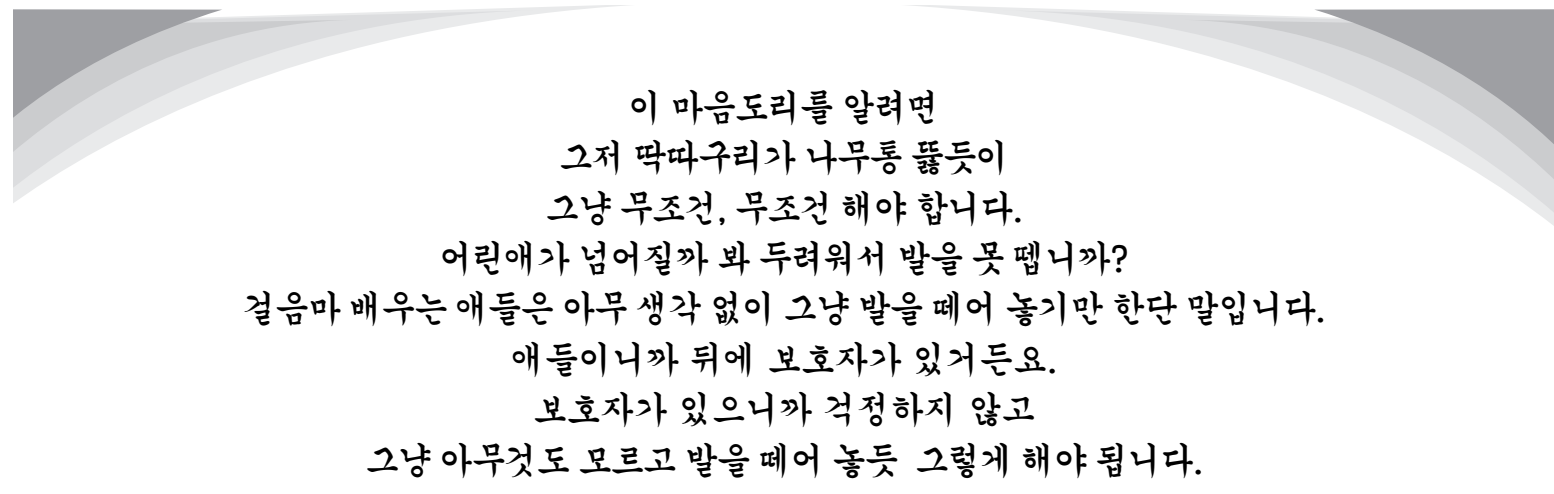
요, 물은 흐르다가 어떤 게 막히든지 유유히 흐릅니다.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웅덩이가 있으면 거길 채우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걸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쌀 문제 때문에 이라고 저라고 말이 있을 때 '저저 삼분의 일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겠지. 저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쌀 문제만 가지고 거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국 문제 세계 문제로 다 포함돼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은 주식의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구요. 우리가 지금 지혜가 풍부하다면 한국에서 잃지 않고 살 수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한국의 쌀을 잃지 않고 항상 소비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든가, 그렇게 되면 쌀값이 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살기가 좀더 낫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쌀을 먹고 좀 나은 사람들은 우리 쌀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스스로 여러분이 마음의 지혜를 잘 응용해야만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만약에 마음의 지혜를 잘 낼 수만 있다면 아주 큰 폭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절반, 그렇지 못하면 삼분의 일, 이렇게 되죠.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냐는 데 달려 있죠. "스님, 뭐 누구냐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물 흐르는 대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강제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를 안 받아야겠다.' '그러면 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혜롭게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뱉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지혜가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부 마음 높음이에요. 그렇게 물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그렇게밖에, 허허허...

우리 쌀을 가지고 잘하면 삼분의 이는 건질 수 있죠. 한국에서 농사짓는 것도 가격이 폭락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스스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금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농사지어서 때부터 된 사람 봤어요? 허허허... 농사지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못쳐서 잘 생산을 해서 어떻게 소비를 잘 시키게끔, 마케팅 하느냐이게 문제죠. 소비시키는 것도, 얼마만큼 가치있게 만들어서 잘 마케팅 하느냐는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니까 이거는 늙은든 젊은든 남 녀를 막론하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 거를 떠나서 하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중: 예.
큰스님: 예, 못났으면 못난 걸로다가 항상 못난 것이 아니고 잘났으면 잘난 걸로다가 항상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난 것도 아니고 항상 못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쥐어짜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아주 크게 생각하고 '너만이 네 심부름꾼을, 이렇게 못하게 태어나게 했어도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는 그 그냥 진짜로 믿고 나가 보세요. 그럼 대성공을 하실 분들이 여기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2(여): 저는 청주지원 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리던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을 개원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도중 의정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걸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식은 한 점의 불씨로 불리되는

다. 생사에도 꼬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결정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맥 동맥이 막 같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진짜로 부처로 만드실 수 있다면 됩니다. 지금 금방 말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물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하... 아이구 참!

질문자3(남): 저는 청년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한 뒤 질문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 꿈속에서 큰스님께서 제자들이 못마땅하셨는지 제자들을 향하여 마구 화를 내고 계셨습니까. 그러한 스님의 모습은 제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님을 대하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스님의 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내면의 주인공을 향하여 '주인공, 이러면 안되지!' 라고 관을 하였습니다. 그랬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을 스님처럼 대한다면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우선 제가 편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도 편안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에서부터 나무 풀 미물에 이르기 까지, 더 나아가 유정 무정 우주의 만물만생을 스님 대하듯 대할 수 있기를 진정코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쌀 개방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쌀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식량 단속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볼 때는 어떠한 선택이 과연 올바른 해결 방법인지 아리송할 뿐이며 그냥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잘하겠지.' 하고 정치인들에게 일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주인공이 잘 알아서 이끌어 가겠지.' 하고 오로지 주인공에 맡기며 무심하게 지나야 하는 것인지, 이 나라 이해 전체가 걸린 쌀 개방 문제에 대하여 큰스님께서서는 어떻게 한마음을 내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아이구 참! 그런데 말이에

풍부해진 색감!
넓어진 메모 공간!
더욱 세련된!
2012년 마음 다이어리
정찬리 판매중!

아쿠아 블루
오렌지 브라운
라임 그린
세 가지 컬러!

130x170mm
정가: 12,000원

마음의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MAUM DIARY 2012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가기 위한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
한 달 동안 생활의 지침이 될
대행 스님의 법어가 실려 있어요!

YEARLY PLAN
한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MONTHLY PLAN
목표달성을 지원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갑니다.

DAILY PLAN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곳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웁니다.

패스텔톤의 화사한 수채 그림과 손글씨로 쓴 법어 디자인!

뒷표지에는 큼직한 포켓이 달려 있어 메모지 등 수납 공간으로 쓰기 좋아요!

판매처
현불삼: 02-2004-8215
템플스테이 서점, 교보, 영풍,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외 일반 서점

구입시 입금 계좌번호
농협: 211813-52-006904
국민은행: 222-2106-08997
예금주: 이현정

숲속가게™ supsokgage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한그루의 숲)
blog.daum.net/hanjournal/355
구입 문의: 010-8675-3108

* '숲속가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출판기금으로 쓰입니다.